

## 한·중 경제협력의 新구도

李宗哲\*

### 중국경제의 급부상

중국은 과거 15년간 연평균 약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15년이라는 단기간에 중국이 이룩한 역동적인 경제 성과는 과거 한국, 대만, 일본 등이 이룩한 이른바 '동아시아의 기적'과 대비되면서, 중국이 200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세계무대 전면으로의 등장으로,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巨龍의 탄생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심 무대가 대성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경제실적들은 그야말로 눈부시다고 할 수밖에 없다. 1992년 12.8%의 고도성장을 보였던 중국경제는 1993년 실질GNP 성장률 13.0%, 공업생산 증가율 19.5%, 고정자산 투자액 증가율 47%, 수입 증가율 29%, 수출 증가율 8%를 기록하였다. 1979년 당시 293억

달러 수준이던 교역 규모는 1993년 1,957억 달러를 기록해 절대액 측면에서 6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외자 도입 규모도 급증하여 1993년의 경우, 외국인의 중국투자 규모는 실제이용 기준으로 257억 달러 (계약액 기준 1,277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2년에 비해도 약 2배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고속성장의 가도를 계속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경제개발 10개년계획(1991~2000)에서 10년 동안 실질 GNP를 연평균 8~9% 성장시켜 2000년에는 국민총생산을 1990년의 두 배로 증가시키고, 1인당 국민소득도 1,000달러 수준으로 높여 국민생활을 단순한 의식의 해결수준('溫飽')이 아닌 중류생활수준('小康')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93년 상반기의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93년 7월에 들어 구체적인 긴축조치 실시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 조절에 임하였으나, 1993년 11월 중공당 14기 3중全会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제발전론(중국경제론) 전공.

續(기존 정책의 유지), 快速(고도 성장), 健康(건전한 경제여건 조성)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확고한 고도 성장 의지를 재표명했다.

세계의 주요 경제예측기관인 WEFA에 따르면 중국은 1993~97년 연평균 8.7%, 1997~2001년 기간 연평균 8.1%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 개혁을 지속할 경우, 높은 저축률(35% 이상),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높은 기초기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연평균 8~9%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conomist*誌(Nov. 28, 1992)는 지난 14년간 나타났던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격차인 6.5% 포인트가 2010년까지 지속될 경우 중국경제의 규모는 2010년에 미국경제 규모를 능가하여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개혁·개방은 중국인들에게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 한·중 경제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 한·중 경제의 현황

한·중 경제 교류는 1992년 8월의 수교 이

후 각 부문별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3월 金대통령 訪中을 계기로 양국 간에는 양적 질적 경제거래를 확대 심화시키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제3위 교역국이자 최대 해외 투자대상국(허가기준)으로서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무한한 생산기지 및 주력 시장으로서 선진국 시장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우선 교역에 있어서 中國은 93년 총교역규모 89억 달러(간접 교역량을 포함하면 110억 달러)를 기록, 미·일에 이어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 되고 있다. 정부는 對中 교역 규모가 97년에는 지금의 3 배인 28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고, 오는 2001년에는 560억 달러 선으로 높아져서 중국이 제1의 교역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對중국 수출은 92년 165%, 93년 90% 등 급속한 증가율을 기록하여, 이 기간중 우리의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93년중 對중국 수출은 50억 달러에 이르러, 우리 총수출의 6%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1년에는 총수출의 10% 이상을 對中國 수출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들어 규모가 커지면서 對中國 수출 증가율 자체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對中 수출은 우리의 전체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중국의 수입시장으로서의 잠재성도 대단히 커서 이미 농수산물과 일부 광물자원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2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93년중에는 약 39억 달러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였으나, 최근 수입 품목이 각종 산업용 원자재 및 소비재로 다양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對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을 꾸준히 발굴하고, 중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주요 설비를 우리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對中 플랜트 수출에 대해 과감하게 수출보험을 받아줌으로써 우리 기업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이 중국내 사무소를 잇따라 개설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80년대 후반 국내의 급격한 임금·지가 상승 및 ASEAN·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업종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對中國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對中國 직접투자는 1989년 3건에 1,146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3년 말에는 총 1,442건(투자금액 누계 9

억 6,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韓銀에 따르면 1994년 2월말 현재 해외투자 허가 총건수의 31.6%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지역 중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對中 투자를 97년까지 4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2001년까지는 이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2001년 우리 기업의 총 해외 투자를 500억 달러로 예상할 때,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중에 「對中 투자 유망 업종」을 선정해 이 업종의 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해외 투자 자금도 전체 투자액의 80%(대기업 70%)를 융자해 주던 것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의 對中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진출방안」을 금년중에 수립하고, 大連과 重慶에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무역관을 개설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對中 투자 활성화와 아울러 양국간 산업협력체제 강화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번 김 대통령의 訪中時 설치에 합의한 「韓中産業協力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항공기, 수전차 교환기(TDX), 고화질 텔레비전(HDTV) 등 4개 분야를 산업 협력

우선 분야로 정하고 앞으로 원자력발전, 위성개발 등에서도 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교역액이 92년 중국의 총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으로 7번째 교역상대국이고,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 정도로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경제 교류의 내용이나 증가 속도로 볼 때 그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80% 이상이 홍콩과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華僑자본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이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성격의 투자를 한국기업에 기대하고 있으며, 華僑圈의 투자가 광둥성을 중심으로 하는 揚子江 이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東北3省, 環渤海지역 등에서는 한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 한·중 경험의 문제점

최근의 통계를 중심으로 한·중 경험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역과 對中 직접투자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對中 수출 구조는 농수산물 등 1차산품 4,300만 달러(166% 증가), 화학공업제품 6억 3,100만 달러(40.6%), 비금속 광물제품 4억 7,000만 달러(158%),

석유류 8억 100만 달러(74.9%), 생활용품 7,700만 달러(117%), 철강 및 금속제품 11억 2,500만 달러(31.1%), 전자 및 전기 4억 6,800만 달러(124%),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0억 5,800만 달러(472%) 등으로 특히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전자 및 전기, 생활용품 등의 수출이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수입의 경우, 농림수산물 12억 2,300만 달러(1.2% 감소), 광산물 5억 3,600만 달러(3.3% 증가), 화학공업제품 4억 4,700만 달러(21.1% 감소), 유류제품 1억 3,500만 달러(45.6% 증가), 철강·금속제품 2억 3,800만 달러(12.5% 감소),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6,500만 달러(8.6% 감소)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입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물, 광산물, 유류 등 1차산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한·중 간의 교역이 기본적으로 垂直분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對中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업종별 편향이 심하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1992년 말까지 총 투자 건수(426건, 3억 6000만 달러)의 71.8%를 산동성(144건, 1억 2000만 달러)과 동북3성(162건, 1억 900만 달러)이 점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對中 투자 중 산동성에 대한 투자 비중은 무려 35%로 산동성 다음의 투자지역인 요녕성(18%)에 비해서도 투자 규모가 거의 두 배

나 되고 다른 성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산동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산동성에 대한 투자 중 80%가 청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省 間의 투자 편향은 물론 省 內의 투자집중도 심한 편이다. 업종별로는 섬유, 완구, 신발 등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산업이 對中투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단독투자와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섬유, 신발 등 경공업체들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수출의무비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도는 극히 미약한 편이다.

또한 韓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對中투자 허가 금액은 10억 5,200만 달러로 전체허가금액(74억 2,000만 달러)의 14.2%에 머물러 아직도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이 중소기업 위주의 소형 투자가 주류를 알 수 있다. 특히 투자규모 면에서 100만 달러 이하의 소액 투자가 82.6%를 차지했으며, 100만~500만 달러 투자는 15.5%, 500만~1,000만 달러 투자는 1.4%,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 대형투자는 5건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은 ① 자의적인 지가 산정 ② 투자승인 절차의 복잡 ③ 원자재 등 수입제한, ④ 각종 금융제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以下에서는 여기서 도출된 한

· 중 경협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특히 내수시장 개척과 관련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중 경협의 개선 방향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가계의 소득증가에 따라 내수시장과 수입수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또한 중국은 1991년 이후 全方位 개방정책의 실시로 과거 외국기업의 진출이 어려웠던 내륙으로까지 개방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내 임금과 토지개발비 상승, 다른 나라와의 對中시장 先占경쟁, 중국의 급속한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조정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내수시장 진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지금까지 對中투자는 생산비 절감을 노린 생산기지의 對中이전과 조립가공후 제3국수출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저가격과 싼 노임만을 겨냥한 對中 진출전략은 장기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 내수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수

1) 이하의 논의는 김 익수. 1992.12. 「대내외 여건변화와 한중경제협력의 신구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립에 있어 우선 필요한 것은 투자지역의 다변화이다. 이에 앞서 중국시장은 하나의 통일된 단일 시장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소시장이 모인 거대한 집합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인식해야 한다. 이같은 분할시장으로서의 특성은 경제체제 각 방면에서 실시된 분권화 조치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의 또하나의 특성은 구매력 격차이다. 중국의 경우 1인당 GNP는 당해지역이 연해지역인가 내륙지역인가에 따라 다르다. 1991년 중국 30개 省·市の 1인당 국민수입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상위 15개 省·市에는 연해지역의 11개 省·市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같은 省市 內에서도 내륙지역과 연해성시, 도시와 농촌, 구시가지와 경제기술개발구간의 격차가 크다. 일례로 산둥성 內에서도 도시주민의 1인당 수입은 1991년에 1565元인데 비해 농민의 1인당 수입은 764元으로 도시주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1인당 소비수준도 지역간·계층간 격차는 물론 지역내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산둥성의 경우 1991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수준은 1245元이지만 농민 1인당 소비수준은 551元에 불과해 도시주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투자인 경우 진출목표 지역과 계층의 소득 수준, 소비성향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외국기업의 내수시장 판매를 국내공

급이 부족한 제품, 선진기술상품, 수입대체상품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밖으로는 열려 있지만 안으로는 닫혀 있는 제한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같은 중국 내수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은 중앙정부가 전지역을 통제하는 하나의 경제가 아닌 각급 지방정부가 각기 상이한 정치·경제적인 이해에 따라 상이한 권한을 행사하는 여러 경제의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투자 동기별로 투자지역을 차별화하고 다각화 하는 것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투자지역의 다변화는 산둥성과 동북3성 등에 대한 투자일변도에서 벗어나 소비재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의 경우 북경-천진-하북, 상해-강소-철강, 광동-북건성의 3축을 중심으로한 지역공단 조성을 위한 투자는 청도, 천진, 대련 등 연해 개방도시, 자원개발을 지향한 투자는 신강, 내몽고, 섬서, 흑룡강성 등 내륙지역, 제3국 수출형 투자는 산둥, 광둥, 요녕 등 연해지역으로 투자지역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수시장의 효율적인 개척을 위해서는 협력 분야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시장에 대한 금융투자, 공단조성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 등은 유망한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교역의 경우 수직교역 일

변도에서 벗어나 산업 내의 수평교역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투자에 있어서도 섬유·신발·피혁·봉제·완구·식품 등 노동집약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중국경제의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집약적 부문으로 다각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先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에 의한 합자·단독 투자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대기업간 혹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연합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합자·합작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합자·합작투자는 마케팅, 원자재, 에너지 확보, 현지금융 획득 등과 관련하여 합작선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자원 배분 및 고정자산 투자의 심사 등에 있어 막강한 힘을 가진 지방정부와 협상하는 데 있어 중간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단독투자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 맺는말

양국경제는 보완적인 측면과 경쟁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경제발전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경제발전 모델 제공자로서, 중국의 현실에 적합한 중간기술 및 자본을 보유한 인접국으로서 중요한 역

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해외시장의 다변화, 원자재 수입선의 확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쟁적인 측면을 극소화시키면서 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교역·투자와 더불어 자원, 과학·기술, 교통,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구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른 세계 및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의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중 경제협력관계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중국의 분권화된 현실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주요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